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1~6/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2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자비도량참법	운허역/선나원	운주사
5	요가 수행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5)	아헹가조니/애반스 더글러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6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불광출판사
7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지음	한산암
8	초발심자경문	탄허선사 강의	불서보급사
9	허브 마더팅크처:자연으로 치유하는 동종요법 판허브요법	유이 토라코	햇무리
10	자비수참	편집부	부다가야

책세상

종정예하 직접 밝힌 '평생 일관'인 이유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성파 스님 · 김한수 지음

샘터 / 2만원

전통문화 선양해온 정통 수좌

스스로를 '초보'라고 칭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격려

"인생에 '다했다'는 건 없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늘 특별한 법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양산 통도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써 법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지난해 3월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의 신성과 법통을 상징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내린 첫 법어의 시작이다. 스님은 어려운 화두나 선사의 어록 대신 찬란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복원하는 데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처럼 성파 스님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내보인 것은 스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26안거를 성만한 정통 수좌이면서도 스님은 늘 전통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2000년 4월 통도사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개원한 이래 스님은 선농일치 정신을 선양하고 통도사에 차밭을 재건했으며, 감나무밭을 일구고 야생화를 심었다. 20여 년간 직접 도자기를 굽고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해 장경각에 봉안하기도 했다. 또 천연염색과 새로운 옻칠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늘 앞장섰다.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라는 스님의 짧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스님의 삶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이 표현 자체가 곧 책 이름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로 탄생했다. 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가 성파 스님을 만나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설하진 않았지만 스님이 들려주는 40년간의 삶 이야기에서 왜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지, 왜 일이 곧 공부이고 공부가 곧 일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겼다.

스님은 책에서 "나는 출가 이후로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늘 행복하다"고 말한다. 일이 공부이고 공부가 일인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도 성파 스님이 직접 지었다.

"나는 통도사에 내 집을 갖다 놓은 후로 계속 나날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다했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나는 초보라. 지금도 모르는 것뿐이고,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할 뿐입니다. 아직 안 본 것도 많고, 안 들은 것도 많고, 나날이 새로운 것들인데요." –'마음이 무엇인가' 중에서

성파 스님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이루기도 어려운 일들을 연달아 개척해왔다. 스님은 스스로 "나는 500살 인생을 산다"고 말한다. 수행에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즉 단번에 경지로 뛰어넘는 것처럼 다른 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장르에 무모하리만치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비결로는 '콩깍지론'을 이야기한다.

꽃이 떨어지면 바로 작은 열매가 달리는 다른 과일과 달리, 콩은 꽃이 떨어지고 달리는 콩깍지 속에 콩알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콩알이 생기고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주춤하거나 겁먹지 말고 우선 계획을 짜놓고 안을 채우라는 말이다.

"무소유를 해야 훌륭한 스님이 된다. 그런 말은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반대라. 나는 욕심이 대적이다. 무소유와는 정반대라. 욕심이 대적이다. 큰 대(大) 자, 도적 적(賊) 자. 큰 도둑놈이라. (…) 나는 이루고자 하는 거라. 소유하고자 하는 거라. 무소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거라. 내 이 생이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소유라. 안 그러면 눈 감아버리지, 왜 밥을 먹고 약을 먹나. 그래서 나는 소유가 엄청 나. 남의 것도 내 거라." –'무소유? 나는 욕심이 천하의 대적' 중에서

스님은 '욕심이 대적' '무소유가 아니라 삼라만상이 내 소유'라고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스님의 욕심은 정신적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욕심, 국민이 사찰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안식을 얻기 바라는 욕심이다. 스님이 해온 일은 과거에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나 근대화 이후 사찰에서도, 민간에서도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출가자로서 도자기, 천연 염색, 옻칠 민화, 된장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외도한다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스님은 그 일들을 행복하게 수행해왔다.

"종교인들이 보면,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일한다' 그뿐이라."

스님의 말은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권유로 들린다. 모두가 스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일과 공부를 하나로 여기는 자세로 산다면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스님이 시대에 건네는 화두이자 권유이며 응원이고 격려다.

초기불전 근거한 '반야심경 공부법'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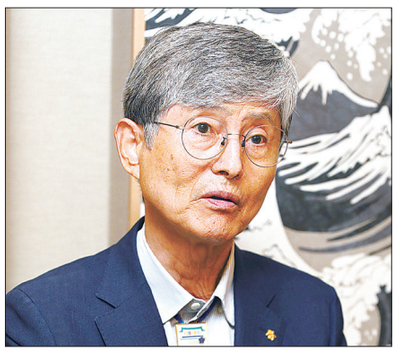
김사철 · 황경환 지음

김영사

1만5800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진언은

부처님 깨달음 과정 전한 一句



▲저자 **황경환**은…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불교 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 명예철학박사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읽고 독송했을 경전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260자도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 정리해 놓았기에 한국불교의 법회에서는 한문이든 한글이든 〈반야심경〉을 꼭 봉독한다.

그렇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같은 경구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경구가 가진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인 두 명의 재야 불교연구자가 〈반야심경〉 '공부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김사철과 황경환이 저술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대다수 해설서와 달리,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초기 불전에 근거하여 붓다의 명상 과정에 맞추어 실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난해한 개념들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존의 〈반야심경〉 해설서가 대개 '공(空)' '반야바라밀다' 등 심오한 개념들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에 치우쳐, 불교를 매우 난해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소외시킨 면이 다소 있었던 데 비해,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가 다름 아닌 '팔정도의 완성을 통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단언하며,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팔정도'라고 하는 실천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붓다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진리는 고 · 집 · 멸 · 도 사성제(四聖諦)로 이 중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 즉 고통으로부터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팔정도라 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자 전부이므로, 대승이든 소승이든, 어떠한 종파라도 그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명제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바른 생활(계), 바른 명상(정), 바른 통찰(혜)을 끊임없이 닦아 팔정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임을 설명한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며,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저자들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렇기에 〈반야심경〉 말미의 다섯 만트라에 대한 저자들의 해석도 매우 독창적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반야심경〉 마지막의 진언은 붓다의 가르침인 고귀한 여덟 겹의 길(팔정도)'에 대한 실천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이다.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Gategate, pāragate, pārasaṁgate, bodhi, svāhā)"

이 만트라는 '계(가테가테) → 정(파라가테) → 혜(파라상가테) → 해탈(보디) → 해탈지견의 완성(스바하)'이라는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보살은 누구든 이 만트라를 외우고 실천하면 지혜의 완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시대신주(신비스러운 만트라), 시대명주(위대한 밝음의 만트라), 시무상주(위 없는 만트라), 시무등등주(비교할 수 없는 만트라)'라고 찬미한 것이다.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인 '공'과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를 초기 경전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 · 팔정도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이러한 참신한 시도로, 〈반야심경〉은 '공'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교학서일 뿐 아니라, 붓다의 명상 과정과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내용을 밝혀 놓은 훌륭한 수행지침서임을 새로이 일깨워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